

황해의 기적과 서해안 시대



조경원

(주)유신코퍼레이션 사장

chokw@yooshin.co.kr

1. 서 론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갖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꿈은 미래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앞으로 더욱 더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바라고 있으며, 우리나라라는 잘사는 번영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온갖 변화가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래 세계적으로 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닥쳐오면서 미래를 더욱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가 하나되어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특히 중국의 경제가 급부상하는 세계의 미래모습을 그려보며 세계속의 우리나라가 세계와 함께, 중국과 함께 가야할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황해의 기적을 예측하며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미래는 미리 예측하고 긍정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2. 미래예측 : 미래의 메가트랜드에 대하여

미래는 현재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현상에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현상에서 대부분 그 경향이 어느 정도 뚜렷하여 트랜드로 인식되는 현상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인류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오는 고령화 사회는 분명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성이 강조되며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고, 가상이 눈앞의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며, 한편 환경문제, 기후변화 문제, 에너지문제 등으로 세계가 곤경에 빠질 우려도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John Naisbitt는 “미래로 가는 거대한 흐름” 「메가 트랜드」에서 미래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주도한다고 주장하며, 시각(이미지) 문화로의 전

환, 경제영역에서 국가가 아닌 경제도메인으로의 변환, 중국을 중심으로한 아시아의 부상,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축 등을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구촌화의 진전으로 세계정부가 탄생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과 같이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범 세계적으로 극복하거나, 더욱이 미래의 심각한 지구촌의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도 세계정부와 같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3. 세계를 움직이는 힘 - 세계화에 대하여

3.1 세계화의 힘 - 바다로

지구상의 세계화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1492년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과 1520년경 마젤란의 세계일주로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 나라의 바다로 향한 의지는 국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에 이어 영국은 바다를 제패하고 미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식민지를 개척하며 크나큰 경제적 부를 누리면서 대영제국을 경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8세기에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으며 그 결과 서방세계는, 그 중에서 특히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가의 영예를 누려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어떠하였나요? 기록에 따르면 콜럼버스보다 훨씬 이전인 1405년 명나라 항해가인 정허(鄭和)가 동남아시아, 인도양을 건너 동아프리카까지 항해를 하며 교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430년 이후 황제가 항해 중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선박을 불태우고 무역을 중지시켜 폐쇄적인 사회로 변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바다를 정복하고 세계화를 추구한 서방세계에 뒤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식전행사에서 세계로 항

행했던 정허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최근에 정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다로 나가 세계 진출을 가속화 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3.2 세계 힘의 축 이동 - 서쪽으로

역사적으로 세계의 패권은 시대를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인류문명의 발상지 페르시아 만의 영예는 그리스를 거쳐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였던 로마제국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후 바다를 지배한 스페인을 거쳐,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한 영국으로 제해권이 넘어가서, 대영제국은 세계 제1의 패권국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권도 19세기 후반부터 대서양을 건너 우월한 산업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으며 세계 대전을 두번 겪으면서 미국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져서 130년 이상 통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의 Super Power로서 Pax Americana라 불리는 패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힘의 축은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를 지나 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서쪽으로 계속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미국은 경기침체와 달러위상 저하, 그리고 최근의 금융과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국가적 위상마저 위축되어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상하는 아시아, 그중에서도 동북아의 위상이 크게 성장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음을 볼 때 세계의 힘의 축이 태평양을 건너 다시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 정식 논의되었습니다.

4. 세계 경제의 현황 및 전망

4.1 세계 경제 현황

세계 경제는 최근 크나큰 경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중심에 미국이 있습니다. Super Power인 미국은 <표 1>에서와 같이 2006년 GDP가 13조 1600억 달러로 세계 GDP 합계의 27.2%를 차지하고, 한국, 중국, 일본의 GDP 합계 7조 9000억 달러의 1.67배에 달하여 실제로 독주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현황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신흥 경제 성장국가의 등장입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NIEs)의 출현에 이어 BRICs, Chindia, NEXT-11 등 의 신조어가 탄생하면서 장래에 크게 성장할 국가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BRICs는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향후 50년 동안 가장 성장하는 나라이며, NEXT-11은 BRICs의 뒤를 이을 11개 나라들입니다. 그중 가장 각광을 받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Chindia)이며 역시 중국이 신흥 성장국의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4.2 세계 경제 트랜드와 장기 전망

세계 경제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대폭 감소 하였지만 성장 트랜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패

권주의(Pax Americana)가 「흔들리고 있음을 최근 Fareed Zakaria가 저술한 “흔들리는 세계의 축”(The Post - American World) - 도전받는 미국과 떠오르는 신흥세력-」이나 앞에서 언급한 John Naisbitt의 저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고 중국을 기회로 삼을 것을 권장하면서 영국 버진 그룹 회장 브랜슨경이 “요즘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중국과 관계없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미래 학자들은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때가 언제인가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면서 2050년까지의 주요국의 GDP를 제시하였습니다 (<표 1>). 예측 결과에 따르면 동북아(한국+중국+일본)는 2030년경 미국의 GDP를 능가하며 2050년 이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4.3 동북아 - 세계 제1의 경제권

이러한 경제전망이라면 동북아 경제권은 현재 경제블록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세계 제1의 경제 도메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세계의 축, 세계경제의 패권이 동북아 지역으

<표 1> 주요국 경제현황 및 예측

국가	GDP(억달러)			인구(백만인)	
	2006년	2030년	2050년	2006년	2050년
미국	131,600	220,000	372,000	299	402
한국	8,900	25,000	42,000	48	42
중국	26,400	147,000	441,000	1,314	1,409
일본	43,700	63,000	72,000	128	103
동북아 계	79,000	235,000	555,000	1,490	1,554

<자료> GDP : 골드만삭스 추정 인구 : UN 인구보고서

로 이동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으며 Pax Americana에서 Pax Sinica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5. 중국의 성장

5.1 중국의 경제개발역사

중국의 경제성장 신화는 1978년에鄧샤오핑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등장하면서 개혁·개방을 선언하였고 “黑貓白貓” 「쥐를 잘 잡으면 흰 고양이 검은고양이 가릴 것 없다」 「先富起來」 「먼저 부자가 되어도 좋다」 고 하며 경제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쩌민 시기에도 기존 정책을 계승하였으며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후진타오 시기에도 고도성장은 지속되었으나 과속성장의 후유증인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을 우려하여 2006년 11차 5년 계획에는 과열억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포함 되었습니다. 최근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화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연평균 10% 수준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세계적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림 1〉). 이러한 상황

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기에 충분하게 하였으며 지금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2 중국의 개발 전략 : 경제 특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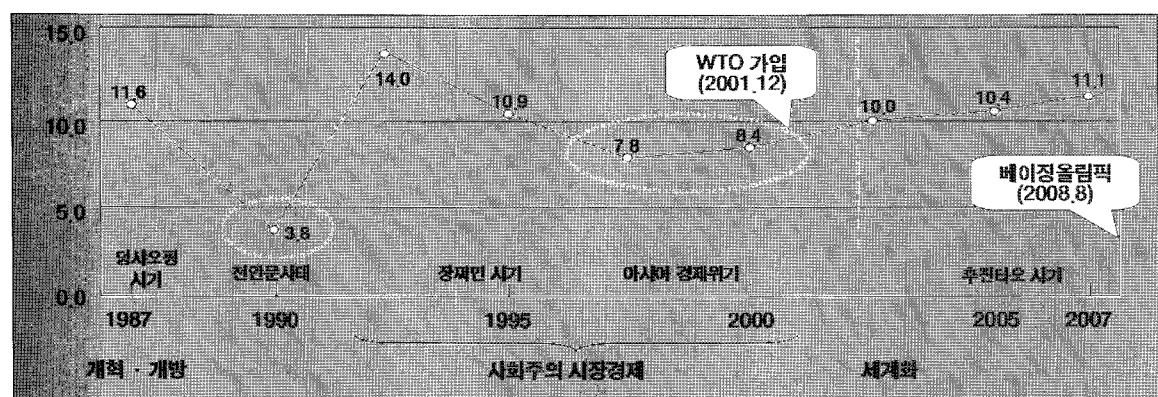
鄧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빠른 성장을 위해 동부 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전략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1979년 경제특구로 5대 지역(심천, 주해, 산동, 하문, 해남)을 선정하였고 경제기술 개발구를 설정하여 1990년대 중반 포동 신구를, 2000년에 빈하이 신구를 국가 주도로 대규모 개발하였습니다 (〈표 2〉).

중국의 3대 핵심 경제 지구로는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가 있으며 이들도 모두 동부 연해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표 3〉).

중국의 11차 5년 계획에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상

〈표 2〉 경제기술 개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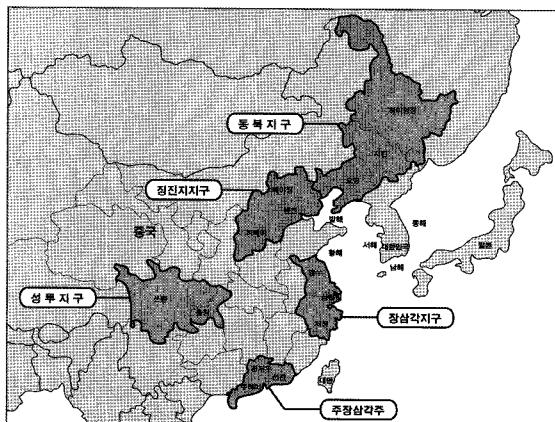
구분	면적 (㎢)	발전방향	수입 (2005년)
포동신구 (상하이)	533 (상하이시 9.4%)	중국의 경제중심 금융+물류+R&D	31.1억달러
빈하이 신구 (톈진)	2,270 (톈진시 20%)	북방대외개방창구 물류+제조업	25.3억달러



〈표 3〉 중국의 3대 핵심 경제지구(산업클러스터)

경제특구	지역	면적(km ²)	GRDP(억 달러)	특성
징진지 (환발해)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55,883	1,700	순수IT, 연구센터 (챠오페이뎬 신규단지 개발중)
창장삼각주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113,655	4,100	내수지향, 자본장비형 대기업 창장IT Corridor (상하이-난징)
주장삼각주	광동성(광저우, 주하이, 선전 등)	55,870	4,690	수출지향, 노동집약 중소기업 부품산업 집약단지
계	-	225,408	10,490	

태라고 생각되는 주장 삼각주를 제외한 반면 동북 지구와 성투지구를 추가하여 4대 경제지구를 집중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림 2〉).



〈그림 2〉 중국 경제특구

5.3 중국의 항만개발

5.3.1 중국항만의 물동량

2006년 국가별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 중국이 8,740만 TEU로 세계 1위이고 세계의 물동량 42,980만 TEU의 19.7%를 차지하며, 2위인 미국의 4,090만 TEU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3위, 4위, 5위는 싱가포르, 일본, 한국이며, 세계의 19.2%를 차지하고 있어, 동북아는 세계 물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3.2 항만별 물동량

세계에서 가장 컨테이너를 많이 처리하는 항만은 싱가포르항이며, 1~6위는 모두 동아시아에 있는 항만이고, 세계 10대 항만중 4개항이 중국의 동부연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항은 2006년 실적으로 1,200만 TEU를 처리하여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항은 2006년 3위였으나 근래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곧 세계 제1의 컨테이너 항만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동부연안을 3대 항구군으로 구분하여 (〈표 4〉) 항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황해지역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세계 해상 물류의 허브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표 4〉 동부연안 3대 항구군

항구군	대상	처리능력 (2010년 계획)
환발해권 항구군	다롄, 칭따오, 텐진	2,900만 TEU
창장삼각주 항구군	상하이(양산항), 넝보	3,100만 TEU
주장삼각주 항구군	선전, 광저우, (홍콩)	2,000만 TEU

5.3.3 양산항의 개발

중국이 아심차게 바다를 통한 세계로의 도약을 위해 건설하는 항만이 양산항입니다. “一山不容二虎”를 표방하며 세계 최대항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2005년 소양산에 1단계 개항(5선석)을 하고 2010년

까지 30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완공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대양산까지 개발하여 50선석 이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양산항이 창장 삼각주가 최대 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하는 날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항만 배후단지가 없고 32km의 동해대교를 통해 내륙연계 수송을 해야 하는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산항의 개발의지를 볼 때 과거 정허의 업적을 재현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5.4 한·중관계의 조망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 사상, 그리고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엄연히 다른 나라 이면서도 같은 영어 문화권으로서 서로 통하는 것 이 있는 것과 같이 중국과 한국도 유사한 관계로 이해됩니다.

근래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한·중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등장하였으며, 한·중 무역량은 한·일 무역량을 추월하였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 되었으며 무역량도 계속 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표 5〉).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액을 보아도 2007년 중국이 약 52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미국이 2위이지만 중국의 약 6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밀접성은 중국과 우리나라

〈표 5〉 한국과 주요국의 무역액
(2006년, 단위 : 억달러)

상대국	수출액	수입액	무역액 계
중국	633	441	1,074
일본	241	472	713
미국	395	311	706

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베이징과의 거리는 900km, 상하이 820km, 산동반도 웨이하이 까지는 450km에 불과합니다. 제주도와 상하이간은 500km 미만입니다. 가까운 거리이기에 쉽게 왕래하며 교역을 활성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할까요?

중국의 경제규모나 성장속도로 보아 우리의 모든 요소에 중국이라는 요소를 내부인자로 끌어들이고 중국시장을 우리의 내수시장과 연계시켜 혁신적인 투자 전략이나 투자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래 한·중 관계는 국가간의 경제라기보다 황해를 중심으로 동일한 경제 도메인을 구축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며 우리는 호랑이(중국) 등을 올라타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6.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

6.1 자랑스런 한국의 현실 -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 건국 60년의 발자취는 고도성장의 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우리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후 IMF 사태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GDP 세계 12위, 무역액 세계 12~13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등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IT강국으로서 세계무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6.2 현 정부의 국가 비전 - 한반도의 기적

현 정부는 우리나라를 선진화를 통한 일류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잘사는 국민”과 “따뜻한 사회” 그

리고 “강한 나라”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어 보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6.3 한국이 걸어갈 길 : 번영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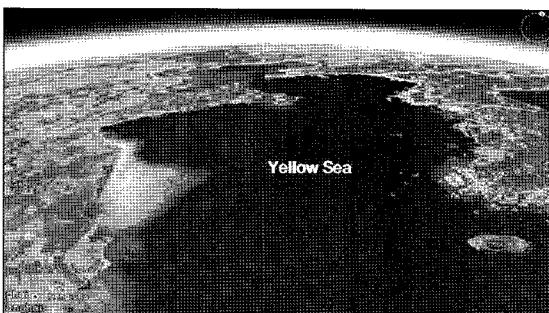
미래의 잘 살고 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는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도성을 위한 신 성장동력 전략은 기업하기 좋은 SOC구축, 개방과 세계화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확대, 저탄소 녹색 성장과 같은 신기술 창출, 그리고 산업기반시설로서 혁신 산업 클러스터 건설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토를 재창조하는 길로 번영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번영의 길은 미래로, 세계로의 기본 방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6.4 한국의 미래 모습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의 2050년 1인당 국민소득이 90,294달러로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1위 미국의 91,683달러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일본은 66,846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GDP는 4조 달러를 상회할 것이며, 현재의 GDP의 4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림 3〉 환황해권 전경

우리의 미래 번영의 길은 GDP 4배를 실현시키는 실질적인 방안이어야 하며 세계와 함께, 그리고 중국과 함께, 미래를 통찰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는 궁정의 힘과 함께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성취한 우리는 한반도의 기적을 기필코 달성할 것입니다. 번영의 길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춰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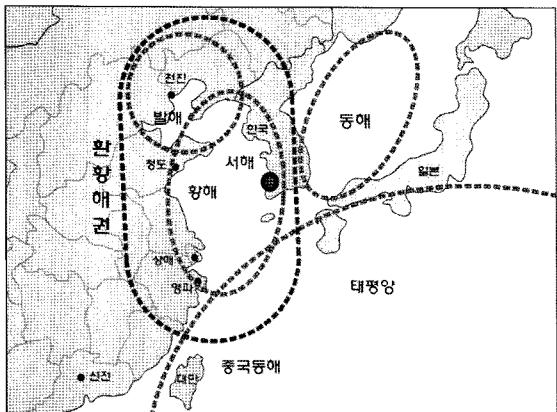
7. 환황해시대의 도래

7.1 환황해권의 위상과 역할 : 세계 경제의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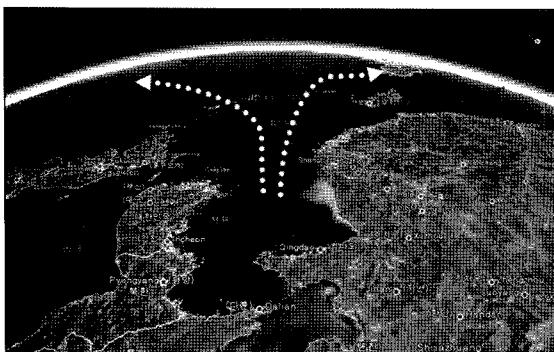
환황해권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발해와 황해)과 한국의 서해안지역(서해 또는 황해)이 주축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동북아가 장래에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환황해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림 3〉).

환황해권의 주요 지역인 중국 동부 연해지역은 중국의 경제 특구가 모여 있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핵심지역입니다. 동부지역과 동북지역의 역할은 GDP 규모로 중국전체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부연해 지역의 수출액은 중국전체의 92%,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하며 충청과 호남지역이 합세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황해권의 위세라면 장래에 세계경제의 허브지역으로서의 자리를 굳게 할 것입니다.

환황해권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아 한·중교역의 장으로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황해의 북측에 위치한 발해만을 포용하고 있어 발해만권과 동북 3성 지역의 경제를 수용하게 되며, 일본



〈그림 4〉 환황해권 역할



〈그림 5〉 황해에서 세계로

과 북미지역으로 연결되는 환태평양권과의 접속점으로 세계교류의 요충지가 될 수 있고, 환동해권의 통문(입구)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사통팔달의 물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황해를 통해 중국남방의 동남아시아를 연결하고, 인도양과 유럽으로 지향하는 발전의 방향성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 4〉).

우리나라는 환황해권의 일부로서 황해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며 미래의 세계화를 완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림 5〉).

7.2 환황해시대의 도래 : 황해의 기적

환황해권의 위상이 새로운 세계적인 핵심 경제 도메인을 구축하고 미래에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온다면 황해의 기적을 이룰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번영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미래에 세계 힘의 축이 이동함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경제의 중심이 미국 맨해튼의 월가(街)라 하지만 미래에는 환황해권의 어느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미래에 탄생할 세계 정부의 수도를 유치하자는 꿈이 망상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기회를 꼭 붙잡고 기필코 세계 2위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8. 서해안 시대를 열자

8.1 우리의 과제

환황해시대에 부응하여 잘 사는 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해안 시대를 열어 신국토를 창조하고 신 성장동력(터전)을 창출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를 균형개발하고 국토를 재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1인당 국민소득 9만 달러, GDP 4배를 달성하는 고도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중국과 환황해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서해안 시대를 열고 황해의 기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8.2 서해안 시대의 신국토 창조

8.2.1 국토 발전 축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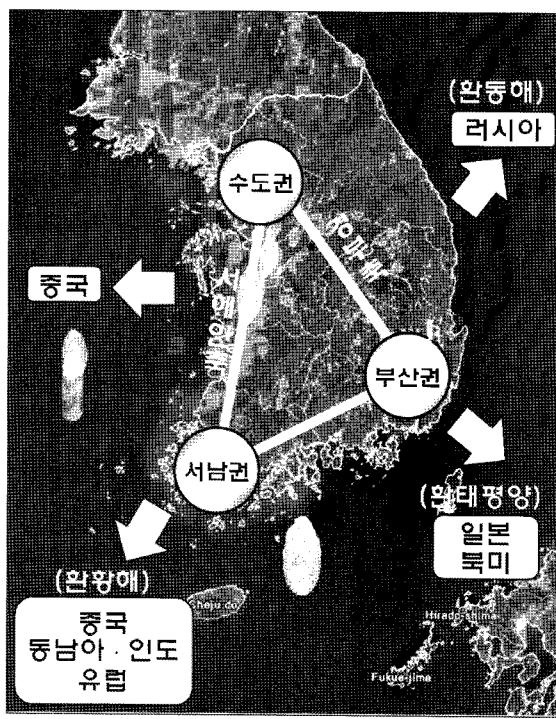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국토의 개발축은 경부축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일

본과 미국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부축에 인구, 산업, 물류 등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환황해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축이 장래 발전축으로 대두되어야 합니다. 서해안 축이 황해와 만나면 중국뿐만 아니라, 환황해권의 역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북미 지역은 물론 동남아, 인도, 유럽지역과도 원활한 교류가 기대됩니다.

8.2.2 신국토 창조 방향

이제까지 우리는 균형개발을 한다고 하며 전 국토에 기능을 평등개념으로 균배하고, 분산형으로 국토를 개발하였습니다. 국토개발에도 포퓰리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 이용을 효능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특화하고 경쟁



〈그림 6〉 신국토 창조 : 3대광역권 개발

화하며, 광역개발로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직접 억제할 것이 아니라 지방거점을 대규모로 적극 개발하여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2.3 서남권 개발 : 국토를 3대 광역권으로 개발

서해안 축의 발전과 서남권을 수도권과 부산권에 대응하는 거대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은 국토를 3대 광역권으로 개발하고 삼각축을 형성하는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개념입니다 (〈그림 6〉).

8.2.4 서해안 개발 기본방향

환황해시대를 맞아 중국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서해안 개발이 신국토 창조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서해안 개발개념의 핵심은 황해를 내해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는 국가간의 국경을 갖는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경제권(경제 도메인)으로, 즉 하나의 상권으로 보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중국시장을 우리의 내수시장과 연계시켜 대규모 개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강국인 중국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부연해지역과 일체화된 긴밀한 관계 정립이 요망되며, 한국의 수도권은 중국의 베이징과, 그리고 한국의 서남권은 중국의 상하이권과 상응하도록 개발하고 동부연해 지역에 대규모로 개발되는 경제특구를 거울삼아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중국은 서고동저(西高東低), 한국은 동고서저의 형상을 보이며 모든 강이 황해를 향해 모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황해양안(우리나라는 서해안 연안)의 지형이 평坦하여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도 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주보고 있는 연안과의 거리가 지척간이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최소화

하며 교류를 극대화하는 물류 시스템 구축이 기대 됩니다. 그 외 정치적으로 경제협력이나 FTA등을 논의하면서 양국 관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3 신 성장동력(터전) 창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신 성장동력으로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빈하이 경제신구의 면적규모는 2,200km²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배 이상입니다.

확충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복합기능의 혁신 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미래형 복합 도시를 건설하여 지가가 저렴하고 규제가 없는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방향이 요망 됩니다.

공급은 수요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국 시장을 배려하고 세계 각국의 투자 유치를 통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패러다임으로, GDP 4배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미래를 지향하는 확고한 개발 의지로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기업유치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8.4 서해안 황금벨트 개발

8.4.1 서해안 지역 개발 현황 및 계획추진

서해안 지역에는 현재 3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있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확장,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 등이 추진 중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경인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발 상황이 부진하며 개발계획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도 오래되지 않았으며 아산만지역, 군산지역, 목포지역의 서해연안이 부분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무안기

업도시, J-Project등 많은 개발 계획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8.4.2. 서해안 황금벨트 개발계획 구상

서해안 개발의 기본방향에 따라 서해안 황금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충하여 대규모로 개발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서해안 황금벨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기능별로 연계하여 종합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계획합니다. 계획의 기조는 신 국토 창조방향에 맞게 특화하거나 집중화하는 것입니다.

이 곳은 연안지역이므로 해상물류를 요구하는 업종을 위해 항만개발을 하고 대규모 토지를 요하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간척과 매립에 의해 저지가의 토지를 대량 공급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의 갯벌을 이용한 문화 관광자원 개발도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서해안지역의 SOC 인프라 건설도 중요한 개발 계획의 요소입니다.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서해안선 철도의 건설, 공항 및 항만의 신설 및 확충은 지역 개발을 더욱 촉진시킬 것입니다.

한·중 해저터널 건설 구상은 서해안 개발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서해안에서 산동반도의 웨이하이로 연결한다면 서해안의 시점 위치에 따라 200km ~370km의 긴 터널이 소요되는데 북한지역의 용연에서 시작한다면 터널 연장이 198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물론 북한 지역을 도로 또는 철도로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정치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만 정치적인 대 태협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의 커다란 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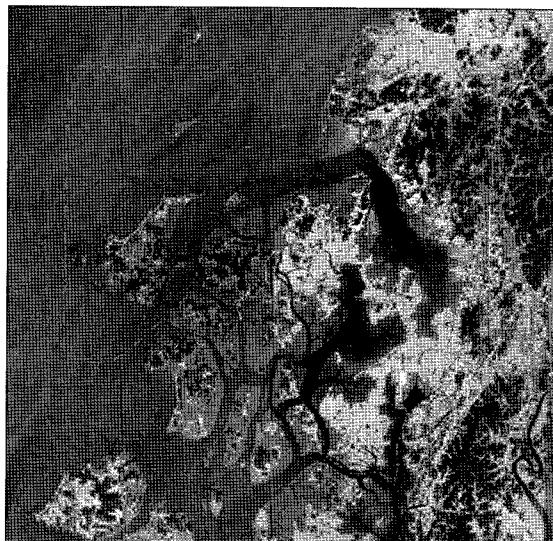
8.5 서남권 개발 계획 구상

8.5.1 서남권 개발 의의

서남권은 국토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현재 지역발전이 부진한 실정이나 서해안 시대를 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대 거점으로 우선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며 서남권 개발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국토 균형개발 길라잡이 : 3대 광역권으로 균형 개발
- 제2의 수도권으로 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에 일조
- 환 황해 경제 요충지로 육성 : 금융허브, 물류허브 지향
- 국가 고도 경제성장의 성장동력 창출
- 서해안, 남해안 벨트의 만남 : 개발 효율성 극대화
- 미래 광역 복합 도시권으로 승화
(서울 보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건설)

8.5.2 제2의 수도권 개발구상



〈그림 7〉 계획입지도

서남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개발하여 인구 1,000만 규모의 광역권으로 개발하며 주요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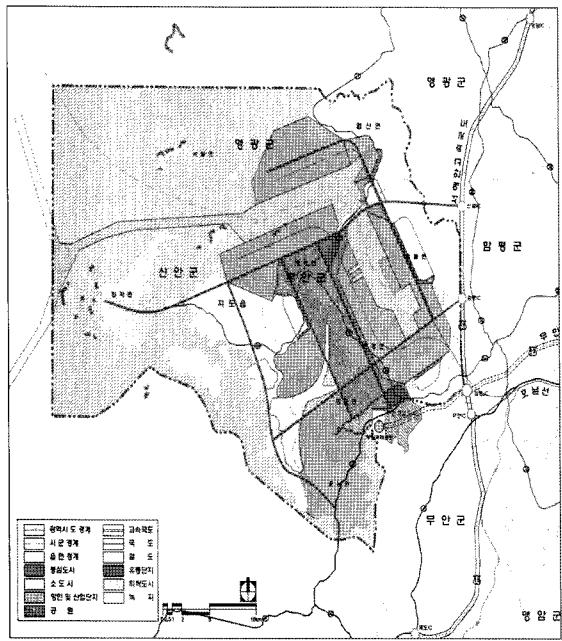
- 광주광역권(메가시티)건설 = 광주광역시 + 주변 도시
- 새만금 개발계획의 전폭 수용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행
-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계획의 실현
- 다도해 해양 관광지개발(중국인의 놀이 · 휴양 공간)

이러한 개발구상에 추가하여 서남권 개발의 핵심이며 환 황해시대에 부응하여 미래의 과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황해항 테크노폴리스 건설을 제안합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복합산업도시를 건설하여 신성장 터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시개발 개념으로 미래요구를 수용하여 외국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제 2의 수도권 형성에 견인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황해의 기적을 현실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6 황해항 테크노폴리스 건설계획 개요

8.6.1 계획입지 ((그림 7))

-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 계획면적
 - 전체도시 면적 : 636km²
 - 기존육지 : 416km²
 - 신규매립 : 220km²
- 천혜의 항만여건
 - 준설과 매립으로 부지조성 용이
 - 수심 16m 확보 · 항만건설 용이



〈그림 8〉 종합개발 계획구상도

8.6.2 계획개요 (〈그림 8〉)

- 산업단지(임해성) : 250km²
- 항만(안벽) : 40km 이상
(수심) : 16m 이상
- 중심도시 : 50km²
- 기타 소도시, 위락도시, 연구단지 등
- 황해항 개요
 - 산업항 : 산업단지와 결합된 항만개발
 - 자체 및 신규창출 해상화물량 처리
 - 세계 최대의 항만개발 잠재력
(양산항 능가, 동북아 물류허브)

9. 결 론

우리는 동북아가 세계 제1의 경제권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황해의 기적이 올 것

입니다.

조금만 멀리 바라보는 관점에서 국토발전의 방향을 옳게 잡아 효능적인 신국토를 창조하고, 고도성장의 터전을 미리 준비한다면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라시대(840년경) 장보고가 완도부근 청해진을 거점으로 바다를 정복하고 주변 해적을 완전 소탕하였으며 일본과 중국(당나라)과의 삼각무역의 중심에 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당진(唐津)이라는 지명은 당나라와의 교역항을 뜻합니다.

과거-현재-미래를 이어가며 서해안 시대를 열고 황해의 기적을 이룩합시다.

참고문헌

- 김병린 외 (필자공저) (2007). 황해항만산업 테크노 폴리스를 열자, 바이북스.
- 매일경제신문사 (2007). 힘의 이동 (다보스 리포트).
- 박영숙 (2008). 미래뉴스, 도솔출판사.
- 신지은, 박정훈 (2007). 미래혁명, 일송북.
- (財)矢野恒太記念會 편집 (2008). 세계 국세도회 (2008/2009).
- 한덕수 (2006). 중국의 13억 경제학, 한국경제신문.
- Fareed Zakaria (2008). 혼들리는 세계의 축, 베가 북스.
- John Naisbitt (2006). 마인드 세트, 비즈니스 북스.

저자 약력

- 1969, 서울공대 토목공학과 졸업
- 1976, 네델란드 국제수리공학과정(IHE) 수료 항만 및 해안 기술사
- 현재, (주)유신코퍼레이션 사장